

T V

TV 1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6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Lists TV programs for October 19th.

TV 20일

Table with 6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Lists TV programs for October 20th.

TV 21일

Table with 6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EBS. Lists TV programs for October 21st.

TBN 광주교통방송 개국 15주년 축하공연

‘교통문화 대축전’ 오늘 오후 6시 광주시청 야외음악당

TBN 광주교통방송(본부장 김홍근)이 개국 15주년을 기념해 19일 오후 6시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교통문화 대축전’을 개최한다.
광주시와 광주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주간 전 조등 켜기 범시민 실천대회를 비롯해 번진섭, 민혜경, 조항호 등 인기가수가 출연하는 개국축하공연으로 꾸며진다.



(TBN 광주교통방송)

다양한 교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9일(음 9월 5일 癸丑)

- 36년생 분위가 쇠신을 해 보는 것도 좋다. 48년생 행복이 물어나리라. 60년생 생산적인 거래가 되어야 할 것이다. 72년생 분명하다면 가져야 할 밀어붙여야 한다. 84년생 상대와 유기적 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06, 52
37년생 한 발짝 물러서 관조해 보는 것도 좋다. 49년생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이다. 61년생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 게 우려된다. 73년생 물이 깊은 곳에 큰 고기가 모이느니라. 85년생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행운의 숫자 : 84, 23
38년생 시원하게 해결되는 후련함이 있다. 50년생 시각적인 모습으로만 평가하려 들지 말라. 62년생 휘발된다면 상처가 깊어질 수 있느니라. 74년생 주변을 너무 의심하다 보면 목적을 이루기 어렵겠다. 행운의 숫자 : 94, 34
39년생 번거롭더라도 신용을 지켜야 된다. 51년생 출신 수범하라. 63년생 소극적이려면 뒷북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75년생 걸음으로는 아무렇지 않을지라도 속으로는 땅이 수박에 없다. 행운의 숫자 : 72, 61
40년생 양보하면 쉬운 일을 가지고 고집 부려 꼬이게 만드느니라. 52년생 무의식적인 말 한마디에 상대의 마음이 상하였다. 64년생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76년생 참여한 관심사가 눈앞에 펼쳐질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01, 68
41년생 유혹에 휘말린다면 여러 가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53년생 소문은 사실과 멀므로 추측할 필요 없다. 65년생 억지로 매달려 있을 이유가 없느니라. 77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말라. 행운의 숫자 : 12, 77
42년생 부드러움이 감함을 제압하는 법이다. 54년생 다시 살펴본다면 빈틈이 있을 것이니라. 66년생 되돌리기에 늦었으니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다. 78년생 정신적 고통이 따를 것이니 각오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8, 88
43년생 탄력을 잃을 수 있음을 명심하라. 55년생 무조건 배려해주는 것보다 자생력을 키워주는 것이 좋다. 67년생 대범하게 인식하는 의연함이 절실히 요구된다. 79년생 냉엄하게 평가받게 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40, 05
44년생 충분히 실력 발휘를 하고도 남음이 있다. 56년생 안달 나서 견디지 못 할 정도가 될 것이다. 68년생 정성을 다 한다면 반드시 성취하라라. 80년생 영리한 허구란 없는 법이니 정직하게 쳐서 하자. 행운의 숫자 : 30, 90
45년생 헛수고 하고 있다. 57년생 차원 높은 세계의 진귀한 교류가 있을 것이니라. 69년생 요행수를 바란다면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이다. 81년생 천 길 방죽도 개미 구멍으로 무너지는 법이다. 행운의 숫자 : 22, 92
46년생 소강상태를 끝내고 넘치는 활기로 가득할 것이다. 58년생 기회가 주어졌을 때 당겨야 좋다. 70년생 불합리한 점을 방치해 둔다면 연쇄적 모순이 발생한다. 82년생 재물운이 광에 든 쥐 격이다. 행운의 숫자 : 93, 44
47년생 기다림이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59년생 변화를 도모해 보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71년생 자유로움만 추구하다 보면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느니라. 83년생 마음 자체가 제일 중요한 법이다. 행운의 숫자 : 48, 60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